

# 8가지 절대망대의 비밀을 알려 준 창세기

## -복음으로 여는 창세기-

창세기 41:38-40, 사도행전 7:9-10

정운돈 목사님

\* **창41:38-40**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외뿐이니라

\* **행7:9-10**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열두 가지,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이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복음과 선교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치유를 받고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주간 여러분의 기도와 힘으로 네덜란드 베고은 램넛트선교사의 교회 창립예배를 드렸다. 유럽 5개국 선교사님도 뵈었다. 선교보고를 잠깐 하자면, 네덜란드라는 지역은 ‘화란자위대학’이라고 개혁주의 최고의 신학교 중의 신학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 그 학교가 완전히 복음이 없는 학교로 변했고, 영향을 전혀 못 주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더라. 설립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하루, 이를 관광을 했다. 네덜란드에서 꼭 가야 한다는 관광지가 흥동가라고 하더라. 네덜란드는 마약과 매춘이 합법화된 나라다. 다른 나라가 흥동가를 관광코스라고 하면 이상할 텐데 네덜란드는 거기를 안 가면 이상해 한다. 네덜란드는 그걸 자유,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선교사님이 안내를 해주셔서 가보니가 별이 5개, 3개 있는 간판이 있었다. 뾰족 뾰족이 마약 종류마다 작용효과가 얼마나 센지에 따라 별을 매긴 것이다. 그런 현장에 우리 램넛트가 파송되었다. 소수지만 다락방을 하고 개인양육해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 냈다. 아무리 타락하고 유럽에 기독교가 다 무너졌더라도 말씀과 다락방으로 살릴 수 있음을 봤다. 이런 램넛트가 일어나면 죽은 유럽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번에 제가 갔다 온 관광코스는 내년에 램넛트들과 같이 가야하기 때문에 답사개념으로 돌아왔다. 동유럽 5개국을 돌면서 선교사님이 어디 계시나 찾아보니까, 5개 나라 중에 1개 나라에만 선교사님이 있더라. 그렇게 다 텅텅 비어있다. 선교사가 이렇게 안 되고 있고,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선교지가 많은 것이다. 가서 밟기만 해도 된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셨다. 발칸반도를 돌면서 역사를 듣는데, 너무 아픈 역사다. 지금도 비슷한 맥락으로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당하고 있다.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다. 지금도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 민족, 내 나라, 내 왕국, 내 돈, 내 이익을 따라가도록 한다. 십자가전쟁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다. 종교와 하나님을 악용하는 것이다. 지금도 똑같다. 지금도 종교 가지고 싸우면 더 무섭다. 이념과 하나님의 이름, 정의의 이름으로 싸우면 더 무섭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뭔지. 종교는 죽이는 것이지만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좋은 말을 가지고도 죽인다. 우리는 살려야 한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안식일 날 쉬고 전쟁도 안 했다. 적군이 안식일 날 쳐들어오는데 쉬고 있으니까 다 죽었다. 얼마나 바보 같나. 그러나 바보 같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율법적으로라도 지키니까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하물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말씀이 체질될 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나.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면 평탄하고 형통한 응답이 올 것이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될 것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체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오스트리아는 합스부르크 왕국의 중심이었지만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아주 작은 나라가 되었

다. 인본주의 쓰다가 이렇게 약한 나라가 되었다. 유럽 현장에는 기독교와 천주교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있으니까 다들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 이 많은 천주교는 유지를 하는 반면 기독교는 말씀이 없어서 다 무너지고 있다. 우리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후대들에게 역사를 복음으로 다시 재해석, 재적용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237나라를 살리는 교회와 교단이 되어야겠다.

오늘은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창세기는 4사건, 4인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4사건은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이고 4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다. 이것이 우리들이 알고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창세기 안의 8가지 절대망대이다. 즉, 창세기 속에는 우리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다. 창세기만이 우주만물과 인간 창조에 대한 정확한 시작을 알려 주고 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우주 끝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모른다. 우리가 믿을 뿐이다. 자연적으로 생명이 발생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 지옥과 천국을 증명할 수 없다. 믿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믿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다. 성령이 아니면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사단,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스스로가 실존하는 것보다 더 믿어진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증거를 대도 성령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믿어진다. 또한 창세기는 사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부부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문명의 시작에 대해 씨족 사회와 제국의 시작에 대한 역사를 알려주고 있다. 즉, 성경이 없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인류 문명과 세계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4대 문명이 다 3천 5백년 정도 되었다고 말한다. 그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제일 오래되었다고 말한다. 결국은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곳으로 수렴하는 것이다. 네안데르탈인이니 하는 건 다 모르는 소리다. 지금 100년 사이에 한국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람들은 천 년, 만 년을 너무 쉽게 말한다. 지금 우리는 3천 년, 4천 년 된 인류인 것이다. 지구가 만 년이라면 지금 인구가 몇 천억 명이 되어야 맞다. 교회의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 교육을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유럽처럼 모두를 불신자로 만들게 될 것이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과 야벳과 함이 전 세계로 퍼졌다고 말한다. 근본적인 원래의 조상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육단’이라는 사람의 13명의 자녀가 동쪽으로, 시베리아 쪽으로 갔다고 말한다. 그 사람들이 인도, 중국, 한국으로 갔다고 본다. 뿌리를 성경으로 봐야한다. 오늘은 창세기에 기록된 4사건과 4인물에 대하여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드리고자 한다.

**1.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망대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을 보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책이 없다. 히브리어로는 **בְּרֵאשִׁית** 베레쉬트, 태초에 무에서 유로 **אֵלֹהִים** 엘로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게 단수인데 동사가 복수다.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영세 전에 우주만물과 인간을 창조할 것을 미리 편집, 설계, 디자인하셨다. 성경의 첫 시작이 바로 이 창조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 세상의 어떤 책도 이렇게 명확하게 창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은 없다. 이 창조의 진실을 정확히 알고 믿을 때, 믿음의 길, 복음의 길, 전도의 길은 시작되는 것이다. 창조에 대한 많은 이론과 의견이 있지만 결국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와 천하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질 것이다.

**2. 창세기 3장 타락에 대한 절대망대이다.** 인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 문제의 발생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당한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은 사단의 밥이다. 그래서 강단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 마귀는 원자폭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귀를 수소폭탄으로 이길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요, 말씀으로만 막을 수 있다. 여러분의 문제가 왜 왔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체질 때문이다. 항상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지 않나. 한 가지만 해도 될텐데 한 가지도 안한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을 정도로 말씀으로 답이 나아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강단과 다락방이 필요한 것이다. 밥 안 먹으면 힘 빠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계속 말씀을 먹어야한다. 인류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과 뿌리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이다. 창세기 3장 문제를 요약하면 불신앙, 사탄, 죄이다. 성삼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1)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어떤 성인도 ‘내가 곧 길’이라고 말한 적이

었다. 오히려 참된 성인은 자기가 길이 아님을 안다.

(2)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법적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 세상에서도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을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 사형 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게도 있는 권한인데, 하나님이 못 하겠나. 단지 조건이 있다. 그리스도로 죄가 없어야 한다. 그게 구원이다. 아무도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3)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 마귀는 재앙과 저주로 여러분을 끌고 간다. 축복을 빼앗아간다. 이유는, 여러분이 마귀에게 끌려 갈 불신앙의 고리를 계속해서 주기 때문이다. 양보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여러분을 마귀는 끌고 가기가 너무 쉽다. 이게 울무, 틀, 함정이다. 다들 내 생각들이 너무 많다.

**3. 창세기 6장 홍수심판에 대한 절대망대이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지금 지구에는 노아의 대홍수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노아의 대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제가 오스트리아에 갔더니 음식이 다 짜더라. 며칠 먹으니까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 보니까,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잘츠’가 소금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 소금을 다 산에서 캔다. 한국에서야 소금을 염전에서 얻지만 미국에서도 소금을 산에서 캔다. 나무 없는 곳에 가면 다 물이 흘러야지만 생기는 층이 층층이 만들어져있다. 다 물에 잠긴 흔적이다. 물에 잠겨 있다가 터져서 만들어진 게 미국의 그랜드캐니언이다. 이게 몇 백km다. 하늘의 물 공창과 땅에 물의 샘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다. 이 현상은 호주에도 있고 전 세계에 있다.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몇 십만 년, 몇 백만 년 하면서 날짜를 늘리는 것밖에 못한다. 믿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들에게 홍수심판을 내리셨을까. 그 이유는 인간들이 돈, 이익, 정욕, 성공 등 육신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또 다시 홍수로 수없이 멸망시켜도 육신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쾌락문화와 무속, 점술, 우상문화와 귀신문화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하다. 인간을 짝 쓸어봤자 다시 무너진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한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여러분들도 다 죄인이다. 부족한 것도 너무 많다. 위장하고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도토리 키재기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인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영접할 때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창세기 6장은 오직 방주에 들어갈 때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유일한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게 상징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말이다.

**4. 창세기 11장 바벨탑에 관한 절대망대이다.** 바벨탑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허망한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자신의 성공과 부와 권력과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교회와 예배와 말씀에서 멀어지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멸망과 고통과 저주와 정신병과 자살과 지옥같은 삶과 영원한 지옥형벌이다. 이런 연예인과 정치인들이 많다.

**5. 다섯 번째 영적 비밀은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의 망대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 증거로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좌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여도 순종하였다. 내 자녀중심의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다. 자녀가 교회에서 싸워서 교회 옮긴다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다. 자녀가 교회에서 손해 보니까 참여 안 하는 건 믿음의 조상 아니다. 얼마든지 좋은 학원 보낼 수 있지만 우리 사망자들은 참사랑 애프터스쿨 다닌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는 거지 우리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다. 교회중심, 예배중심의 사람이 참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절대 망대이다.

**6. 이삭을 통하여 주시는 절대 순종의 망대이다.** 이삭은 순종과 운유의 사람이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이려 해도 이유 있는 순종과 복종을 하였다. MZ세대 여러분은 부모님 말에 순종해라. 부모님이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해라. 이유 있는 순종과 복종을 현장에서 해야 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직접 축복을 주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한다. 이삭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했던 사람이었다. 그 결과 한 해에 백배의 축복을 받기도 하였다. 여러분에

게 이러한 응답이 있기를 바란다. 램넛들이 불순종하다가 계속 두들겨 맞으면 안 된다. 축복의 증인이 되어야한다. 네덜란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니 까 지혜를 주시고 교회도 세우게 하였다. 자기 동기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 봉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바벨탑 세우는 것이다. 창세기 26장 12절을 보겠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 바란다.

**7. 야곱을 통하여 주시는 절대 은혜의 망대이다.** 야곱은 진정한 영적인 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세상의 욕심은 버려도 믿음의 욕심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봉사 가지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진정한 봉사다.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야곱은 성격은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다. 결국은 그 나쁜 성격도 마지막에 죽을 때에는 거듭난 모습을 보인다. 복음과 진도와 선교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이 야곱이 세운 절대망대이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란다.

**8.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 주시는 영적서밋의 절대망대이다.** 요셉은 237 치유 서밋의 절대망대를 세웠다. 요셉은 꿈과 비전의 사람이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램넛의 꿈과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살아있는 젊음이다. 저도 지금 운동하면서 237 언약의 뜻을 마음에 정했다. 네덜란드도 그냥 갔던 게 아니라 램넛에게 70나리를 어떻게 보여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었다. 여러분도 꿈을 꾸고 비전을 붙잡으라.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행복하다. 하나님이 주신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이다. 또한 요셉은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를 용서하였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임마누엘의 사람이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자신이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충성된 사람이었다. 꿈과 비전이 있어야지 자신이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그게 없으면 만사가 짜증나고 숨 쉬는 것도 귀찮게 된다. 생명을 걸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꿈과 비전이 없다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요셉의 영성과 믿음을 확인한 애굽 왕은 요셉에게 애굽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유럽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요셉같은 사람이 일어나면 된다. 복음으로 결단내면 복음 안에 다 있다. 결단이 없기 때문에 겨우 먹고사는 수준이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다시 읽겠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요셉은 결국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 응답과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할 줄 믿는다.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1) Covenant. 24 언약 망대이다.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생겼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2) Vision. 25 비전 망대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나라 5천 종족들에게 창세기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다.

(3) Dream. 영원한 드림 망대이다. 만약 우리들이 24시간 창세기에 담긴 ‘8가지 절대망대의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망대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약속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문제 앞에서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해도 3.9.3기도 응답의 문이 열릴 것이다.

(5) Practice, 즉, Heavenly Throne Eternally 실현 망대이다. 성취와 실현의 시작은 마음이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것이다. 저도 뜻을 정하고 계속 도전할 것이다. 저는 70나라 말씀을 가지고 70나리를 실제 가볼 것이다. 우리들이 조금만 마음에 결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보좌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70제자를 찾아 70지역, 70 종족, 70나리를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유럽 선교 현장 포럼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요셉처럼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절대 선교와 복음의 망대를 세우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